

#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677천 Km <sup>2</sup>	GDP	564억 달러(2013년)
인구	64.9백만 명(2013년)	1인당 GDP	869달러(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Kyat(Kt)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934(2013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민족구성(버마인 68%, 카렌인 7%, 카친인 4%)과 종교 분포(불교 89%, 기독교 4%, 이슬람 4%)가 복잡하여 민족 및 종교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버마연방을 국가명으로 사용했으나 2010년에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
- 1962년 집권한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 및 장기집권으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1년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개혁과 대외개방정책 추진됨에 따라 경제제재조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미얀마는 수력자원, 산림자원, 광물자원(구리, 니켈),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여 에너지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 물류, 전력 등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을 적극 시행 중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sup>f</sup>
경제성장률	5.3	5.9	7.3	7.5	7.8
재정수지 / GDP	-5.5	-4.6	-3.8	-4.9	-4.5
소비자물가상승률	8.2	2.7	2.8	5.5	6.6

자료: IMF.

#### □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7.8% 기록 전망

- 미얀마의 주요 산업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이며, 경제 개방 이후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2012년에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건설 산업 호조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7.3%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천연가스 수출 증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인프라 부문(교통, 통신 등) 등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민간소비(GDP의 80%) 증가 등으로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에도 가스, 전력 등의 자원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 전기료 상승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 전망

- 미얀마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음. 2012년에는 정부의 석유 가격 및 전기료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과 유사한 2.8%를 시현함.
- 2013년에는 국제상품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와 신용확대에 따른 통화량 증가, 부동산 가격 및 임금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5%를 기록하였음. 2014년에는 전기료 상승과 고정자산 투자 확대 등으로 6.3%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상됨.

□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축소 예상

-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투자가 증가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폭은 대체로 감소 추세임.
- 2012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8%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신정부의 경기부양 등으로 동 비중이 4.9%를 기록하였음.
- 2014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 탐사권 입찰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정부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성과

###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개시설 등 미비로 농업생산성이 낮으며 폐쇄 체제 지속으로 제조업 기반 취약

- 농업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쌀, 콩 등의 작물을 수출하고 있음. 그러나 관개시설, 비료, 농업기술 부족으로 주변국에 비해 농업 생산량 및 품질이 낮은 편임.
- 장기간 폐쇄적 계획경제체제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음. 최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GDP의 20.3%에 불과함.

□ 계약이행 미흡과 부정부패 등이 기업활동을 저해함

- 2014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미얀마의 사업환경 순위는 189개국 중 182위로 최하위권이며, 계약 이행(188위), 투자자 보호(182위) 등에서 특히 낮은 순위를 보임.
-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3년 미얀마는 177개 국가 중 157위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됨.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

- 물류, 전력 등의 주요 인프라가 낙후되어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을 저해함.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미얀마의 인프라 분야는 최하위 수준(148개국 중 146위)으로 라오스(65위), 캄보디아(86위) 등 인근 국가 대비 취약함.
  - 세계은행의 물류운용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미얀마의 물류경쟁력은 160개국 중 145위 수준으로 ASEAN 국가 중 최하위임. 낮은 도로 포장률, 철도·항만·공항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비가 높아 진출 기업이 원자재 및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삼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미얀마는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제 3위의 삼림 보유국으로 국토의 4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음. 또한, 토질이 양호한 미경작지가 많아 농산물 생산증대 가능성이 높음.
- 철광석,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과 원유, 천연가스가 풍부함. 최근,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출이 2013년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보유하고 거대 소비시장이 인접하여 생산거점 등으로 유망

- 2013년 미얀마의 인구는 6,493만 명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약 69.5%를 차지하는 등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Jetro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의 일반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월평균 53달러로, 중국(광저우) 395달러, 베트남(호치민) 148달러, 라오스(비엔티엔) 132달러, 캄보디아(프놈펜) 74달러보다 저렴한 편임.
- 미얀마는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고 동·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높음.

## 다. 정책성과

### □ 신외국인투자법안 시행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여건 개선

- 신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신외국인투자법안(2012년 11월)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음.
  - 동법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세금감면, 외국인 투자자 앞 인센티브 제공(토지사용 최장 70년간 허용, 이익 송금 보장) 등을 포함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100%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를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 □ 다양한 환율제도를 단일화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

-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식환율, 정부공인환율, 시장환율 등을 혼용하는 다중환율구조를 운영해왔으나, 국제자본거래와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2013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함.
- 관리변동환율제 실시를 통한 환율단일화로 향후 금융시장 육성 및 외환시장 개혁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복잡한 다중환율구조는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미얀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임.

\* 투자와 수출입에 적용되는 공식환율이 실제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이 자원 등의 판매를 통한 수익금액 납부 시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입금함에 따라 시장환율과 공식환율 차이만큼 판매자가 이익을 착복함.

## 3. 대외거래

&lt;표 2&gt;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sup>f</sup>
경상수지	1,574	-1,424	-1,793	-2,997	-3,562
경상수지 / GDP	3.9	-3.4	-4.0	-6.2	-6.8
상품수지	3,478	208	-180	-1,177	-2,187
수출	7,335	7,699	7,818	9,032	10,343
수입	3,857	7,491	7,998	10,209	12,530
외환보유액	5,730	7,017	6,977	8,278	8,727
총외채잔액	13,643	14,632	12,251	11,230	12,666
총외채잔액 / GDP	30.1	28.5	23.1	19.6	20.4
D. S. R.	7.1	5.4	3.3	3.9	3.6

자료: IMF, EIU, OECD.

## □ 자본재 수입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확대 지속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완화로 섬유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의 약 40.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가 흑자 기초를 유지해왔음.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상품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11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함.
- 2012년 의류, 2013년 천연가스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와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12년과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각각 4.0%, 6.2%를 기록함. 2014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GDP 대비 6.8%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파리클럽의 부채탕감과 수출 증가 등으로 외채지표 개선

- 총외채잔액은 2011년 14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부채탕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1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또한 2011년 28.5%에서 19.6%로 감소함.
- 2012년 기준 단기외채는 총외채의 1.2%에 불과하며 공적자금 등 중장기 외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010년 7.1%를 기록한 이후 수출 증가 및 부채탕감 등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14년에는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 외환보유액 증가 예상

- 2012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2013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8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1년 이후, 연평균 25.0%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1년에는 민간정부 출범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전년 대비 71.3% 증가함.
- 신외국인투자법 시행, 미국 및 EU의 대 미얀마 제재 완화 등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향후 제조업, 교통,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군부 영향력은 여전히 큰 편이나 민간정부를 통한 민주화가 점차 진전

- 2010년 11월, 군부 집권 20년 만에 총선이 실시되어 군부 중심의 연방단결 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총 1,154석 가운데 883석(76.5%)을 차지하며 압승함.
- 2011년 1월, 첫 정기국회가 개최되어 전직 장성출신인 떼인 세인(Thein Sein) 전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2011년 4월, 민간정부가 출범하였으며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지를 포함한 민주국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의원이 전체 45석 중 43석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군부의 정치적 지분이 헌법상 25% 보장되어 있어 정치권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언론 통제 완화와 정치범 석방, 야당인 민주국민연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 확대 등으로 정치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



## 2. 사회동향

### □ 소수민족과의 갈등문제가 사회적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얀마 정부는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민족(산족, 카렌족, 카친족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는데, 특히 카렌민족해방군(KNLA)를 결성해 군사정권에 맞선 카렌족은 수만명이 학살당하거나 태국 등으로 망명함.
- 2012년 5월에도 카친주(州)에서 카친독립기구(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KIO) 소속군과 정부군 간에 교전이 발생하는 등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남.
- 떼인 세인 대통령은 소수민족 갈등 관련 협상 기구를 재정비하여 소수민족과의 평화 협상을 통해 사회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분간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종교 분포가 복잡하여 불교와 이슬람간의 유혈분쟁 발생 빈번

- 잠재되어 있던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종교 분쟁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2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이 불교도의 공격을 받아 180여명이 숨지고, 11만여명이 피난하는 등 이슬람교도와 불교도 간의 첫 유혈충돌이 발생함.
  - 2013년 3월에도 미얀마의 중부인 만달레이주에서 방화와 폭동으로 32명이 사망함.

## 3. 국제관계

### □ 정치민주화 진행에 따라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조치 완화

- 2011년 4월 미얀마 신정부 출범, 보궐선거 실시, 아웅산 수지여사 연금 해제 등 정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과 EU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함.
  - 미국은 2012년 4월 자국기업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동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장단체와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를 허용함.
  - EU는 2013년 4월 무기금수 조치를 제외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관세우대제도를 유지함.

## □ 중국 및 서방국가들간 균형 추구

- 미얀마는 서방의 제재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중국 및 인도와 최근 경제제재를 해제한 서방국가 사이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기간 동안 중국, 인도 등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함.
- 미얀마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민주화 노력을 통해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아세안(ASEAN) 국가들 역시 신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파리클럽의 대 미얀마 채무재조정 결정

- 2012년 3월 기준(미얀마 결산월) 미얀마의 총 외채잔액은 146억 달러였음.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파리클럽 회원국의 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를 탕감하고 나머지 43억 달러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전체 파리클럽 회원국의 대 미얀마 채무 중 일본의 비중이 64%(66억 달러)로 가장 높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13년 6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제재 완화에 따른 국제관계 개선, 투자유치 정책에 따른 FDI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통화정책 체계, 인프라 미비, 높은 정치적 위험 등을 이유로 미얀마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저 등급인 종전의 7등급을 유지함.
- OECD : 7등급(2011. 3) → 7등급(2012. 3) → 7등급(2013. 6)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중기 인수 가능
- ECGD : 요청에 따라 인수 가능할 수 있음
- Hermes :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년 5월 16일(북한과는 1975년 5월 16일 수교, 1983년 단교, 2007년 4월 재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7년),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2002년), 사증면제협정(2011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한·미얀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미얀마	2012	2013	2014(1~3월)	주요품목
수 출	1,331	705	163	자동차, 인조장섬유직물, 합성수지
수 입	351	488	121	의류, 농산가공품, 신발
합 계	1,682	1,193	284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 미얀마와의 교역규모는 레일 및 철구조물의 수출 감소로 인해 1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1% 감소하였음.
  - 주요 수출제품은 자동차, 인조장섬유직물,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제품은 의류, 농산가공품, 신발 등임.
-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3년 12월말 현재 신규법인 수 126건, 19억 353만 달러(투자누계 기준)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 운수업, 제조업 등임.
  - 미얀마에 대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신외국인투자법안 시행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2009년~2013년 동안 대 미얀마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동기간의 투자금액은 누적 투자액의 94.8%를 차지함.

## V.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천연가스 수출 증가 등으로 7.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4년에도 가스, 전력 등의 자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4년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등에 따른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 다만, 미얀마 정부가 정치 개혁 및 신외국인투자법안 시행 등을 통한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정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종교적 갈등에 따른 사회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조사역 유 재 준 (☎02-3779-5705)  
E-mail: jjyu@koreaexim.go.kr